

동부권

광양 동천 생태하천 내달 착공

제방 넓히고 산책로·자전거 길 조성 서천과 연결

광양시가 광양동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290억원을 투입해 홍수 대비와 함께 문화와 생태가 살아 있는 동천 조성을 추진한다. (조갑도)



동천 기본개발 계획은 1.7km 구간의 우안쪽 제방을 기존 하천 폭에서 30~50m로 확장하고, 기존 4차로 용강교량을 8차로로 확장한다. 또한 하천확장으로 생긴 고수부지에는 산책로와 자전거 길을 조성해 광양 동천과 서천이 하나의 하천으로 연결되도록 하천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지난해 용역을 완료 후 부설공사 방지 등 효율적인 공사 관리를 위해 갈리 업체 선정과 토지 보상집행 등을 진행해 왔다. 시는 동천을 명품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의회와 유관기관(익산지방국

가을 순천은 '축제의 계절'

자전거·갈대·음식축제 등 다채

오는 10월 순천에서 맛과 멋, 자연을 즐기며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가을 축제가 펼쳐진다. 순천시는 다음달 '제28회 팔마문화제'와 '시민의 날 행사'와 '순천만 갈대축제'·'제17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제2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제28회 팔마문화제·시민의 날> 행사는 10월 15일 순천시 조례호수 공원에서 열리는 시민의 날 행사는 축하영상과 기념사·축사만으로 의전을 간소화하고 순천지명 700년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기원 메시지 전달을 위한 음악분수를 이용한 멀티미디어쇼, 국악관현악단 초청 공연으로 이뤄진다.

'팔마문화제'는 10월 1~29일 문화의 거리내와 문화예술회관·향교 등에서 동서양화, 민속품 전시, 가야금 병창 보존회 공연 등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마련된다. <순천만 갈대축제>는 10월 9일부터 24일까지 주말마다 순천만에서 '생명의 땅 순천만을 날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갈대와 흑두루미의 사랑 콘서트'·'가을 음악회·일일동참'과 함께하는 '흑두루미 가족 콘서트' 공연과 생태체험 걷기대회를 비롯해 테마별 체험프로그램·무선기행 백일장·순천만 전국사진 촬영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있다. <제17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16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남도 밥상' '한국의 건강'이라는 주제로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개최된다. 군악과 상탈행렬·남도음식 전시관·중요무형 문화재·전통 및 창작 국악공연이 열리고 일반부·청소년부의 남도음식대전과 다문화 가정 음식 대전이 마련돼 있다. <제2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은 '두바퀴로 여는 녹색교통시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0월 22일부터 전국 자전거 릴레이단이

▲서부코스(인천~서울~대전~광주~순천) ▲동부코스(강원~대구~울산~부산~순천) ▲제주코스(제주~순천) 등 3개 코스로 나눠 달리면서 10월 30일 순천에 모인다. 전국 자전거동호인과 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마경기장에서 열리는 폐막 및 환송식은 자전거 생활화 선언과 자전거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린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돌산 잣김치' 수출길 열렸다

여수농기센터, 신제품 보호권 획득

여수 돌산 잣과 돌산잣김치가 우리 품종으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2일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 여동안 잣 신제품 연구개발 끝에 '늦동이', '순동이', '신동이' 등 3가지 신제품을 개발, 지난 5월 늦동이에 대해 국립 종자원으로부터 품종보호권을 따낸 데 최근 순동이와 신동이 등 2개

품종도 보호권을 획득했다. 국립종자원은 이들 품종에 대해 3년여에 가까운 재배 실사 등을 거쳐 향후 20년간 이들 종자의 수확물 및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품종보호권)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지리표적시제' 시행과 더불어 여수시만의 이름을 내건 돌산잣·돌산잣김치 생산에 가속도를 낼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2012 여수 세계박람회' 특수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늦동이'는 기존 품종에 비해 매운 맛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꽃대 올라오는 시기에 1달 가량 늦어 수확 절정기인 5월에 안정적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순동이'는 염수가 많고 가시가 없어 맛이 순해 씹음으로 적합하고, '신동이'는 매운맛과 향이 강해 물김치용으로 좋다. 김유근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재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 중인 '3돌이'(장돌이·쌈돌이·꽃돌이)와 올해 출원을 앞둔 잣의 품종보호 등록이 빠른 시일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여수시 삼일동주민센터는 최근 신덕해수욕장에서 대청소를 실시했다. 주민들은 이번 정화활동에서 생활쓰레기와 태풍으로 인해 해안가에 떠밀려 온 해양쓰레기 50을 수거했다.

여수시 삼일동주민센터는 최근 신덕해수욕장에서 대청소를 실시했다. 주민들은 이번 정화활동에서 생활쓰레기와 태풍으로 인해 해안가에 떠밀려 온 해양쓰레기 50을 수거했다. <여수시 제공>

광양 특급호텔 건립 '예정대로'

국토부 "항만 배후단지인 관광시설 건축 가능"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에 들어설 '광양 비즈니스 리조트 호텔' 건립이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국토해양부 회신에 따르면 항만 배후단지는 지원시설과 항만 친수공간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육상해 고부가가치 항만을 도모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지정·개발하는 토지라고 전했다.

또 항만법상 항만종사자 및 이용자, 여객을 위한 숙박시설 설치 가능하고 관광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이 항만활성화와 항만법 취지에 부합해 항만 배후단지에 호텔 입주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최근 항만법에 의해 항만부지내 호텔이나 콘도 등 입주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광양만

경제청과 광양시간 호텔건립 불허와 관련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광양시와 (주)다음 인터내셔널은 지난 7월 MOU를 체결한 뒤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3단계지역에 1069억원 들여 지하1층·지상 29층 규모(객실 304실)의 초특급 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광양경제청에 관광사업업인을 신청했으나, 경제청은 관련법 명시가 불명확하다며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한편 다음 인터내셔널은 2012년 여수엑스포 이전 준공을 위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지리산한우명품관' 개점

곡성군과 곡성축협이 추진해온 '지리산 순한한우 명품관'이 최근 곡성읍 읍내리 기차마을 전통시장에 문을 열었다.

'순한한우 명품관'은 건평 529㎡(160여평)에 판매장을 비롯해 식당과 주방을 갖췄으며,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365 코너도 운영된다. 관광객이 한우를 판매장에서 구입, 식당에서 구워먹는 방식으로 믿고 한

우를 먹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조성했다. 박양구 곡성축협 조합장은 "3년 연속 '축산물 브랜드대진' 최우수상을 수상한 '지리산 순한한우'를 싸값에 공급해 곡성의 명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GG경매 컨설팅(주)

Table with columns for location (지역), type (소재지), area (면적/평), and price (최저가). Includes sections for 아파트, 주거주택, 주택, and others.

공인중개사: 김경희. Contact info: 062-364-8700. H.P.010-4608-3700. Includes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급 매매. 광산구 토지 매매.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Contact: T.062)371-1900.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장점: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광고효과, 롯데마트, 상무병원, 최고 교통 접근성.

인생 열쇠.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정성과노력을 다하여 도원하는 비를 성취 못 하시는 분. 부동산 전문 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